



사무엘상 17:33-37

- 33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여러 서부터 용사임이니라
- 34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키л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 35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죽였나이다
- 36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 37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요약

아무 잘못이 없어도 전도-선교 모르면 재앙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전도-선교 모르면 사실상 복음을 모르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 블레셋 통해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때 나타난 인물이 다윗이다. 다윗은 전도-선교의 절대 이유를 알고 있었다. 하나님이 어려움 주시는 이유는 이 답을 주시기 위함이다.

▣ 서론_ 전도-선교의 절대 이유를 안 다윗(본문 배경 설명)

골리앗
- 키가 여섯 규빗 한 뼘만
- 갑옷만 5000 세겔
- 다리에 놋창, 어깨에 놋단창
- 창날만 600 세겔
- '한 사람 만 택해서 보내라!' 고 말했다(8절).

이스라엘
- 완전히 두려움 속에 있었다.
- 40일 동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조롱 당했다(11절).
- 사울 왕과 군인들이 꼼짝 못하고 있었다.

다윗
- 심부름 왔다가 골리앗의 소리를 들었다(23절).
- 다윗이 교만하다고 형들이 분노했다(28절).
- 왕 앞에서 사자와 곰에게서도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주셨다고 고백

▷ 하나님의 절대 이유를 깨달으면 나의 작은 것도 **다민족 선교의 기능** 이 되는 것이다. 다윗의 양치는 기능이 골리앗을 꺾은 것이다.

▣ 결론_ 다윗이 깨달은 절대 이유(29절 -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1. 완전히 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증거를 보이는 것이 첫 번째 이유
 - 1) 사울 왕도 꼼짝 못 하고 있었다.
 - 2) 장군들도 꼼짝 못 하고 있었다.
 - 3) 다윗의 형들도 꼼짝 못 하고 있었다.
2. 블레셋에게 증거를 보여야 하는 절대 이유
 - 1) 골리앗에게 증거를 보임 -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목숨이 칼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증명
 - 2) 블레셋 군인들에게 증거를 보였다.
 - 3) 블레셋의 왕과 백성들에게 전달됨 -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켜서라도 전도를 하셨다.
3. 전 세계에 여호와를 증거하는 절대 이유
 - 1) 블레셋은 전 세계를 통하는 통로
 - 2) 블레셋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 - 앗수르, 바벨론, 애굽
 - 3) 강대국에는 많은 노예들이 있다. - 이들이 237, 5천 종족들

▷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 생기면 앞의 것만 보고 옆에 것을 보지 못한다. 앞에 것만 보고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이유를 보고 전 세계에 여호와를 증거했다.

▣ 결론_ 다윗처럼 평상시 누리는 힘과 기도

▷ 다윗은 평상시에 기도를 했다.
시 78:70-72 어릴 때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
삼상 16:13 어릴 때 여호와와 신의 크게 감동 되었다.
삼상 16:23 사울왕 앞에 찬양 할 때 악신이 떠나갔다.

1. 형들과의 대화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움 와도 하나님 뜻이면 흔들릴 필요 없다.
2. 천부장과 왕 앞에서의 대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에게서 건져주셨다. 여호와를 모욕하는 자 앞에서도 건지실 것이다(다윗의 믿음).
3. 골리앗 앞에서 대화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왔지만 나는 여호와와 이름으로 왔다. 우리의 목숨이 칼에 있지 않고 여호와와 손에 있음을 증명했다.
4. 골리앗을 이긴 후
40일 동안 여호와를 조 한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잘랐다.
5. 왕 앞에서 대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세계를 향한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 선교의 절대 이유를 발견한 나의 작은 기능에 오는 응답
 - 1) 보좌의 축복 - 전문성의 응답
 - 2) 시공간 초월의 응답 - 나의 일 가운데 나타나다.
 - 3) 237 빛의 응답 - 경제에 일어나기 시작했다.

아무 잘못 없어도 전도·선교 모르면 재앙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쟁

오늘은 보니까 블레셋 통해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도·선교를 모른다는 거는 사실상 복음 모르는 거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때 나타난 인물이 다윗입니다.

▣서론_절대 이유

이 다윗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 이름 나타내는 전도·선교의 절대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절대 이유를 찾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지마는 그게 기도 아닙니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답을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찾기가 쉬워요.

제가 부교역자 때만 해도 너무 어려운데, 제가 전도는 했지만은 ‘내가 오직 전도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 발견은 못 한 거지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게 발견하고 나서 진짜 응답 와요. 여러분이 이걸(절대 이유) 찾아야 됩니다.

여섯 규빗 한 뼘 / 갑옷 / 창날 600 세겔 / 한 사람 (8절)

자, 오늘 본문을 좀 보세요. 배경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 지금, 골리앗이 지금 쳐들어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 거요. 키가 한 여섯 규빗 한 뼘이라. 여섯 규빗 하고도 한 뼘이 더 있다는 거지요. 그럼 뭐, 굉장한 키죠. 갑옷만 오천 세겔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갑옷 입었는데 갑옷 무게만 오천 세겔이라. 다리에도 놋창을 하고요. 또 본문을 보니까 어깨에도 놋 단창을 하고요. 창날만 600 세겔. 창을 들었는데 창날이 600 세겔이라. 이런 큰 장군이 나타난 거요. 그래서 한 사람을 택해서 보내라는 겁니다. 그게 8절입니다. 이 골리앗이 나타나서 “한 사람만 택해서 보내라.”

두려움 / 40일간 조롱 / 왕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위기가 왔고 하나니까, 이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두려워 가지고 있어요. 두려움에 빠졌을 때입니다. 이 두려움에 빠졌는데, 11절에 그렇게 돼 있죠. 세상에 이게, 40일간 하나님 믿는 자와 하나님을 조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뭐 너무 두려우니까, 사울왕조차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사울왕이 상을 걸고 이렇게 했죠. 군인들이 있어도 군인들이 꼼짝을 못하고, 심지어 왕도 꼼짝 못한 거요.

이 사실을 다윗이 안 겁니다. 다윗이 그냥 안 것이 아니고, 이걸(절대 이유)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 이유를 발견하는 순간부터 모든 건 풀리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못 찾았을 뿐이지. 우리는 자꾸 탄식하고, 자꾸만 육신적인 생각하니까 그러지 정말 하나님 앞에 절대 이유를

찾으면 그때부터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어려움들 많이 있을 겁니다. 절대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교의 큰문을 열기도 했습니다.

심부름 / 분노(28절) / 여호와

자, 다윗이 골리앗의 소리를 들었다, 23절에 그렇게 돼 있었어요. 심부름 왔다가 골리앗의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골리앗하고 싸우겠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형들이 굉장히 분노했어요. 그게 오늘 읽어보면, 죽 다 안 읽어서 그렇지, 28절입니다. 형들이 교만하다고 뭐라 했지요. 심지어 왕 앞에서 가니까 왕도 “내가 싸울 수 있겠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다윗이 고백한 걸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은 똑같은 이름을 얘기합니다. “사자와 곰에게서도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때 가지고 있는 이게, ‘다민족 선교의 기능’이 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절대 이유를 깨달으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작은 것도 기능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다윗이 양칠 때, 양치는 기술이란 말이요. 이게 골리앗을 이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오늘 여러분, 그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전도·선교 이유를 깨달으면, 내가 가진 굉장히 작은 것도 기능이 돼요. 물론 큰 기능 있으면 좋겠습니까, 꼭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은 건데도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지요.

▣본론_이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29절입니다. 형들이 교만하다 욕했을 때 이유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절대 이유, 이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어떤 이유입니까?

1. 이스라엘

다윗이 봤을 때 세 가지 이유를 깨달은 겁니다. 자, 이런(서론) 상황입니다. 완전히 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에게 먼저 증거를 보여야 되겠다. 이 이스라엘에 증거 보이는 것이 가장 첫 번째라는 걸 다윗이 안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1) 왕

사울왕도 꼼짝 못하고 있어요.

2) 장군들

거기에는 심지어 장군들도 있었어요.

3) 형들

거기는 심지어 다윗의 형들도 있었어요. 여기에 다윗은 이유를 깨달은 겁니다. ‘여호와의 모욕하는 자를 꺾어서 이스라엘 앞에 증거를 하나님 여호와의 증거를 보여야 되겠다.’

2. 블레셋

‘저 귀신들린 대장, 블레셋에게 증거를 보여야 되겠다.’

1) 골리앗

제일 먼저 뭐니까? ‘골리앗에게 증거를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가서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나는 니가 모욕하는 여호와와 이름으로 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한 거지요. “목숨이 칼에 있지 않고 여호와와 손에 있음을 증명하겠다.” 참 대단한 일들이죠. 여러분이 가진 기능이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의 절대 이유만 깨달으면 됩니다. 확실합니다. 제가 경험한 것도 그렇습니다. 성경 보면 그렇습니다. 이 선교 끊어지니까 계속 재앙이 임하지요.

2) 함께 군인

골리앗을 꺾으니까 함께 있었던 블레셋 군인들도 깨달은 겁니다.

3) 블레셋 왕

자, 이 소식이 블레셋 왕에게 전달된 거요. 블레셋 왕에게 전달하고는, 백성에게도 전달 됐죠.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켜서라도 전도한 겁니다.

3. 전 세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골리앗 앞에서 말했습니다. “전 세계에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증명하겠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에게, 또 전 세계에, 여호와의 증거하는 것이 이유였다, 그 말이요.

1) 통로

자, 다른 사람이 언약 못 잡아서, 언약만 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사실 이 블레셋이 그때 당시에는 전 세계 통하는 통로입니다.

2) 강대국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이 블레셋 위에 앉아서 있죠, 바벨론 있죠, 애굽 있죠. 이런 강대국들이 이스라엘 주위에 싸고 있었습니다.

3) 노예

그리고 거기에는 사실상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이 노예들은 237의 5천 종족이라, 우리 말로요. 여기에 골리앗을 꺾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그것도 이슈(issue)가 돼서 조그마한 아이가 와서, 키가 말이지요, 이렇게 큰, 장군을 꺾은 겁니다. 소년날 거 아니요? 어떻게 이겼느냐고 물은 겁니다. 다윗이 한 말이, 어린 다윗이 한 말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겁니다.

▷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 선교, 교회에, 절대 이유 깨달으면 응답받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 생길 때 보니까, 앞에 거만 딱 보고 옆에 것도 못 봐요. ‘아……, 참 이렇게 되는 거구나.’ 여러 가지 꺾어 보면요, 딱 앞에 것만 봐요. 앞에 것만 보니까 안

보이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본 게 아니라 이렇게(본론 1, 2, 3) 본 겁니다. 이걸 다윗은 본 거요. '지금 이스라엘과 저 블레셋 나라에, 전 세계에, 여호와와 참 하나님임을 증거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오늘 지금, 다민족 선교 헌신 예배하는 데요. 여러분은 사실, 선교하는 것만 가지고도 재앙 막는 겁니다. 선교는 지출이 아닙니다. 선교하는 것만 가지고도, 이미 여러분은 재앙을 막고 전쟁을 막는 거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지요.

▣ 결론_평상시 힘, 기도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다민족 선교하는 분들이 다윗처럼 평상시에 이 힘을 가지고 누려야 돼요. 이 다윗은 평상시에 기도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이걸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갑작스럽게 생긴 게 아니고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어요.

(시 78:70-72, 삼상 16:13, 삼상 16:23)

그래서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면 어릴 때 벌써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1부 예배에 했었지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어릴 때 벌써 "여호와와 신에 크게 감동 되니라." 왕 앞에 갔을 때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다민족 선교하는 여러분들이 평상시 가지고 하는 이걸로 충분합니다.

1. 형들과의 대화

자, 이 큰 어려움이 왔을 때, 다윗이 형들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훗날에 알았겠지요?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형들이 알았겠지요. '아, 그랬구나.' 했겠지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들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다윗이 담대히 나간 겁니다. 형들은 욕을 했더니깐요.

2. 천부장, 왕 대화

또 보세요 이게. 평상시 어떤 걸 했나? 천부장과 왕 앞에서 대화였습니다. 형들과의 대화도 그렇지만, 형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평상시 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왕이 말했잖아요. "그래도 너는 소년이고, 그는 장군인데 되겠나?"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한 대답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사자와 곰에게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물며 여호와를 모욕하는 자의 손에서 저를 건지실 것입니다." 이게 평상시 지금 다윗이 가진 믿음입니다.

3. 골리앗

골리앗 앞에 가서 한 대화가 있습니다. 몇 가지 대화를 했죠. 골리앗 앞에 달려가니까, 골리앗이

하는 말이 "나를 개로 여기느냐? 왜 막대기를 가지고 왔나?"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한 말 아닙니까? 몇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칼, 창, 단창 가지고 왔지만 나는 막대기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 그렇게 말 안 했잖아요. 골리앗이 묻기를 그렇게 물었더니깐요. "나를 개로 여기느냐 막대기는 왜 가지고 왔나?" 이랬더니깐요. 그때 한 대답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왔는데 나는 이 막대기 들고 왔다." 이래야 될 거 아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왔지만 나는 여호와와 이름으로 왔다." 그 앞에 "니가 모욕하는 여호와와 이름으로 왔다." 그게 첫 번째 말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오늘, 네 목을 내 손이 붙이셨느니라. 우리의 목숨이 칼에 있지 않고 여호와와 손에 있음을 증명하겠다." 다윗이 한 말들입니다. "전 세계 여호와와 참 하나님임을 증명하겠다." 이게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면 전 세계 퍼져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4. 골리앗을 이긴 후

이걸 한 번 보세요 지금. 골리앗을. 이긴 앞에 말한 거고, 골리앗을 이긴 후.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돌을 던져서 맞아서 죽었는데 이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요. 이 어린 다윗이 말이요, 그 블레셋 골리앗 허리에 있는 칼 뽑아가시고 골리앗 목을 날렸어요. 성경에는 기록하기를 "다윗은 칼이 없었더라." 40일 동안 여호와를 조롱하던 그 골리앗 머리를 들고 자른 거요. 대단하지요. 놀라버린 겁니다. 그게 순간적으로 한 게 아니요. 그게 벌써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키가 그렇게 큰데, 머리도 클 거 아닙니까? 그걸 자른 거요.

5. 왕

그걸 들고 왕 앞에 간 겁니다. 왕 앞에 가서 한 말이 또 재밌습니다. 왕이 너무 놀란 거요. "하, 도대체 니가 누구냐?" 이런 거요. 간다고 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니가 되겠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와서 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갔잖아요. 그 소년이었잖아요. 알고 물었는지 모르고 물었는지, 좌우지간 너무 놀랐으니까, 우리가 친한 사람끼리라도 "야! 도대체 니가 누구냐?" 이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악신이 들려 있는데, 어린아이가 와서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갔단 말이요. 그럼 기억 못 할 리가 없지요. "도대체 니가 누구냐?" 이랬어요. "주의 종 베들레헬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했어요. 이때부터 다윗은 세계를 향한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좌 - 전문성

여러분의 작은 기능이 이런 응답이 옵니다. 절대

이유를 선교 이유를 찾아버리면 보좌의 축복은 여러분의 전문성으로 나타납니다.

시공간 초월 - 일

아주,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여러분의 일 가운데 나타나요.

237 빛 - 경제

그리고 도대체 237, 이 빛의 응답이, 여러분 세계복음화 해야되니까, 여러분 경제에 일어나기 시작하지요. 꼭 이대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 경제 든든하게 부으실 겁니다. 여기 237 치유 서밋 만드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앞으로 최고 교육도 시작할 겁니다.

▷ 오늘 우리 당회원들하고도, 아침에도 우리 중요한 장로님들, 237 치유 서밋 준비, 우리가 특별한 모임을 가졌지요. 세계 선교를 위한 절대 이유를 발견한 때부터 이렇게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꼭, 여러분, 이 기도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메시지 듣고 더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능하면 가족 예배, 가족 포럼으로 기회를 만들면 더 좋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이 메시지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메시지를 잘 잡으면 더 좋은 기회도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에 가 있는 아이들 보니까 예배 잘드리고 메시지 잡은 애들은 반드시 성공해요. 이번 주간에 이 중요한 응답이 여러분 현장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다민족 헌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에게 일어났던 세계 선교, 우리의 작은 것 통해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237 치유 서밋 사역을 실제로 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주옵소서. 우리의 경제, 후대 경제가 실제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